



숲이 될 수 있을까?

글 한유진, 그림 임덕란/ 책고래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순수함을,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향한 흥미를 일깨우는 이야기

엄마와 함께 숲을 찾은 아이 이야기예요. 이른 아침,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숲으로 산책을 나섰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을 반짝이며 따라 나선 아이. 숲 안에는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기분 좋은 흙 냄새, 발가락을 간질이는 붉은색 흙. 어마어마하게 크고 멋진 나무……. 아이는 작은 발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숲과 친해집니다. 그리고 가슴 한가득 숲을 품고는 돌아오지요.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으로 자리를 옮겨 갑니다. ‘힐링’, ‘웰빙’이라는 말이 인기를 끌면서 숲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어요. ‘숲 해설가’라는 직업이 생겨날 만큼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숲의, 나아가 자연의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흙을 밟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면 말이에요. 《숲이 될 수 있을까?》는 작가의 이런 바람이 담긴 그림책입니다. 숲에 있는 모든 것이 궁금하고 신기한 아이 이야기를 통해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순수함을,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향한 흥미를 일깨우지요.

독후 이해 활동

- ㉠ 돌멩이도, 친친 거미줄도 모두 숲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숲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아래 칸에 적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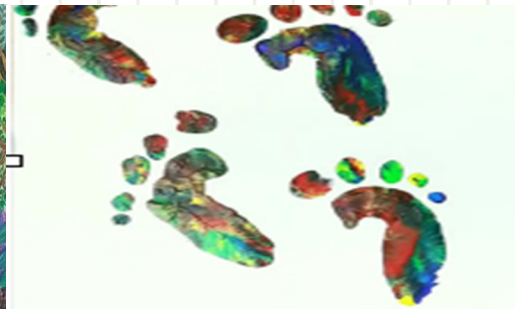
예) 꽃, 달팽이, 나뭇잎, 나비, 도토리

- ❶ 꼬마 왕자의 왕관 참 멋지죠? 숲이나 주변에 있는 식물들로 나만의 왕관을 만들어 쓰고 자랑해 보아요.



독후 활동 이어가기

- ❷ 숲에 가면 지나간 길에 꺾꺾 발도장이 찍혀요. 도화지에 우리 가족들의 발도장도 꺾꺾 찍어볼까요?



〈발도장 찍기〉 발바닥에 물감을 묻혀 도화지에 꺾! 찍으면 된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섞으면 더 재미있고 예쁜 그림이 만들어져요.

- ❸ 숲에는 예쁘고 특이한 모양의 나뭇잎이 많아요. 마음에 드는 나뭇잎을 골라 도화지에 본뜨기를 해 보아요.



〈나뭇잎 본뜨기〉

- ① 모양이 또렷하고 잎맥이 단단한 나뭇잎을 골라요.
- ② 흰 종이 밑에 나뭇잎을 깔고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문질러요.
- ③ 여러 장의 나뭇잎을 서로 다른 색으로 본뜨기 해요.
- ④ 본뜬 나뭇잎을 오려 책갈피로 만들면 더 좋겠죠.